

# 소아 심리 연구

결프 위기가 이라크 어린이에게 미친 영향

## **CHILD PSYCHOLOGY STUDY**

The Impact of the Gulf Crisis on Children in Iraq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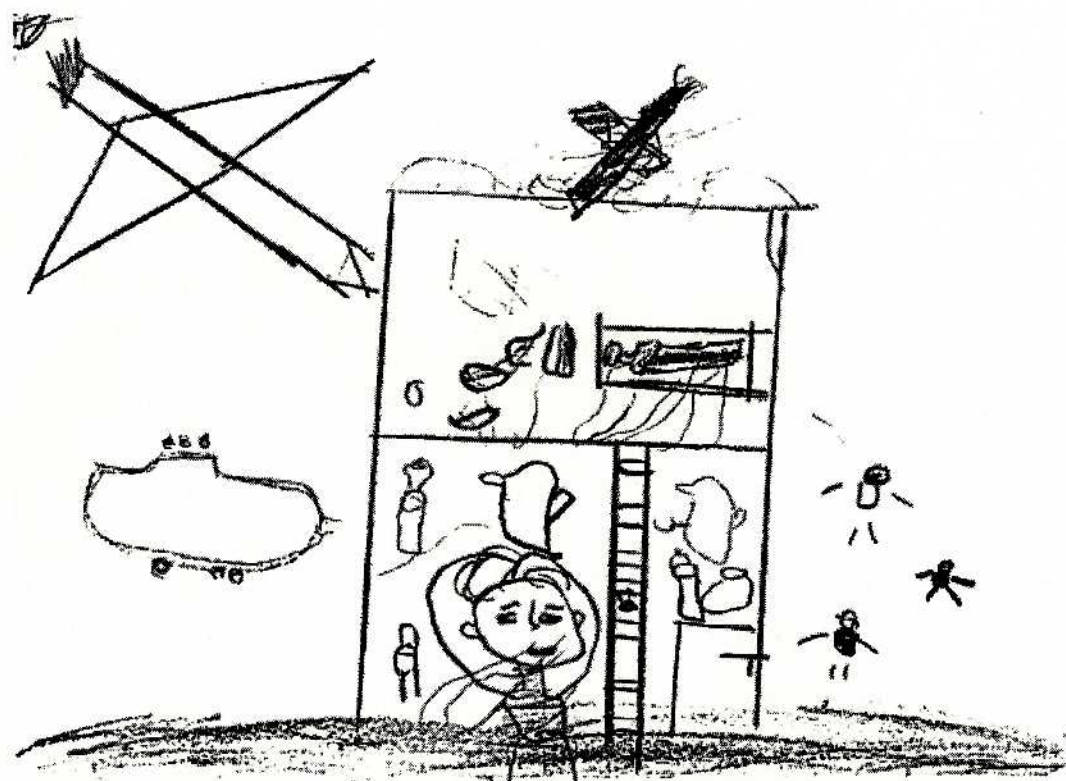
**DR. Atle Dyregrov**

**DR. Magne Raundalen**

October 1991

###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2. Methodology
  3. Findings
    - 3.1 The Impact of Event Scale
    - 3.2 The Post-Traumatic Stress Reaction Checklist
    - 3.3 The Child Behavior Inventory
    - 3.4 Preparedness for the Future
    - 3.5 The Political Frame of Understanding
    - 3.6 The War Event Survey: Trauma, Separation, and Loss
    - 3.7 Basrah Family Study
  4. Conclusion
  5. Comment
- Biographies  
Appendices



## 1. 머리 말(INTRODUCTION)

가까운 거리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체험하는 어린이는 고난과 스트레스를 견디어 내야 하며 결국에는 그러한 노출에 의해 만성적 심리적 증세가 나타난다. 전투에 의한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노출정도와 어린이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여 정량화한 예는 거의 없다. 걸프에서의 최근 사건들은 중동 전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불안하게 했으며 전투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이 전투와 관련된 연구를 10년 동안 하면서 목격한 것중에서, 현재의 이라크에서 행한 연구결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 과정에서 관찰된 스트레스와 병리적 행동변화는 모잠비크, 우간다, 그리고 수단에서 저자들이 연구하여 얻은 결과보다도 그 정도가 한층 심하다.

가까운 거리에서 걸프 위기를 경험한 어린이들의 전후 심리적 곤경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이며 진지하고 충실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2. 연구 방법(Methodology)

1991년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214명의 초등학교 연령의 이라크 어린이들을 면담하

여 최근 겪은 전투에 의한 심리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2명의 소아 심리학자들이 가정에서 면담을 시행하였다. 아랍말을 할 줄 아는 비 이라크 출신 심리학 전공 학생들이 도와주었다. 2명의 심리학자는 모두 전투 관련 스트레스 연구에서 알려진 권위자였으며, 전투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경험(특히 모잠비크, 우간다, 그리고 수단 등에서)이 많았다.

이라크 내의 다음 두 지역에서 각각 107명의 어린이가 표본추출되었다:

- i) 바그다드의 Al Ameriyah 부근지역(은신처 폭격 지역); 그리고
- ii) 바스라(Basrah) 시.

연구 팀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심리학적 평가방법들을 이용했다:

- i) The Impact of Event Scale;
- ii) The Post-Traumatic Stress Reaction Checklist;
- iii) The Child Behavior Inventory.

이러한 방법들은 각각의 해당 부분에서 상세히 토론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214명 이외에도, 127명의 어린이의 보호자(caregiver)들에게 질문을 하여 어린이의 전투 후 행동을 조사하였다. Mortality and Nutrition Survey Team의 구성원들은 표준화된 설문(War Event Survey)을 작성하였다. Survey Team은 127명 각각에서 한 가족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방문하였다.

결국,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어린이와 보호자와의 보다 집중적인 면담을 하였으며, 어린이가 경험한 전투에 관하여 깊이 있는 정보를 얻었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다른 연구 도구들(예, picture drawing, play, and story writing)을 활용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 3. 결과

여러 조사 방법들의 결과들에 대한 분석이 예비적 해석과 함께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 3.1 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

Impact of Event Scale(IES)는 충격적(traumatic) 생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공격적인 사고와 회피행동에 관한 척도를 제공한다. IES은 충격적 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도구들 중 가장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이다. 전 세계에 걸쳐서 여러 재앙들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이용되어 왔으며, 재앙의 심리적 결과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일뿐만 아니라 민감한 도구로 간주된다. 불행하게도 충격을 받은 어린이들의 표본 수가 적어서 불과 소수의 연구들만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IES의 공격 성향 하부척도(sub-scale)는 공격 성향(침략하기, 교란시키기)을 띤 인지 및 정서가 나타내는 징후와 증상에 대해서 묘사한다. Al Ameriyah 부근과 바스라 시에서 각각 107명 어린이에게 척도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Question Asked of Event	Percent Answering 'YES'
Do you think about the event when you don't mean to?	92.1%
Do you avoid getting upset when you think about the event or are reminded it?	76.4%
Do you try to remove the event from your memory?	81.3%
Do you have sleep problems (i.e. problems staying or falling asleep) because of pictures and/or thoughts about the event coming into your mind?	73.9%
Do you have waves of strong feelings about the event?	88.8%
Do you dream about the event?	51.8%
Do you stay away from reminders of the event?	68.3%
Do you feel as if what happened wasn't real?	78.3%
Do you try not to talk about the event?	68.4%
Do pictures about the event pop into your mind?	87.8%
Do other things make you think about the event?	90.1%
Do you still have a lot of feelings about the event, which you cannot express?	59.9%
Do you try not to think about the event?	82.7%
Does any reminder bring back feelings about the event?	91.4%
Are your feelings about the event sort of numb?	66.1%

### 3.1.1 공격/회피 점수의 계산

비교를 위해서 가중치를 두고 도표를 작성하여 행동곤란의 위중도를 나타내는 점수를 얻는다.

Scale Used	Interview Location	
	Al Ameriyah(Baghdad) 107 children	Basrah 107 children
<b>Intrusion Score (3-35)</b>	<b>21.9</b>	<b>24.9</b>
<b>Avoidance Score (3-40)</b>	<b>21.8</b>	<b>26.4</b>

3.1.2 이라크 어린이 면담결과 Intrusion Score는 Al Ameriyah 와 Bsarah에서 총점 35점 중에서 각각 21.9점과 24.9점이다. 두 지역의 평균 점수는 23.3점이다. Avoidance Score는 총점 40점 중에서 21.8점과 26.4점이고, 두 지역의 평균점수는 24.2점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전쟁의 공격적 생각에 의해서 과도하게 시달리는 어린이들의 혼란상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생각들이 어린이들의 일상적 마음 속에 잠입하면 자제력을 잃게 하고, 많은 경우에서 이러한 생각들은 그들의 의식을 형성한다.

어린이들은 그러한 고통스런 생각들을 회피하려고 하며, 그 사건들이 생각날 때 당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기억 속에서 그 생각들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이러한 혼란스런 기억들을 이성적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린이들은 이러한 고통을 주는 마음 속의 '사진'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절없었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매일 그 사건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3.2 충격 후 스트레스 척도 (Post-Traumatic Stress Reaction Checklist)

이 질문들 중 몇 개는 충격척도(IES)로부터 가져온 것이고 전쟁에 의해 영향을 받은 어린이들을 연구하는 "Bergen-Columbia Group"에 의해서 편집된 프로토콜의 일부이다. 이 그룹에는 Magne Raundalen, Atle Dyregrov, Mona Macksoud, 그리고 Larry Aber 등이 참여하고 있다.

3.2

Question Asked of Event	Percent Answering "Yes"
Do you often think about the event now?	86.7%
Do you often get scared or upset when you think about the event?	79.4%
Do you often go over in your mind what happened, like seeing pictures or hearing sounds of what happened?	77.6%
Do you often dream about the event?	50.0%
Do you sometimes feel as if the event is happening all over again?	48.9%
Do you stay away from situations or activities that make you remember what happened?	55.2%
Do you try not to think about what happened?	73.5%
Do thoughts or feelings about the event make it hard for you to remember things well, like remembering what you have learned in class?	56.3%
Since the event happened, do you feel more alone inside, as if your friends or parents don't really understand how you feel?	57.4%
Since the event happened, do you worry that you may not live to become an adult?	62.2%
Since the event happened, do you enjoy playing with friends, doing sports, or participating in other fun activities less than before?	74.7%
Since the event happened, do you have difficulties falling or staying asleep during the night?	65.6%
Since the event happened, do you jump at loud noises or at unexpected things?	75.5%
Since the event happened, is it more difficult for you to pay attention or concentrate on things than before?	62.5%

Percent answering yes to Inventory questions includes children answering either sometimes or always.

#### 3.2.1 고찰

충격 후 스트레스 척도(Post-Traumatic Stress Reaction Checklist) 조사 결과에 의하면, 면담 대상 어린이 대부분이 걸프 위기의 기억과 관련하여 불안과 공포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들은 여전히 가까운 친구와 친지를 잃은 사실과 그로 인한 슬픔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의한 직접적인 충격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의 마음 속으로부터 기억을 차단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면담 대상 어린이의 50%는 계속해서 그 사건을 꿈꾸고 있고, 66%는 그 기억 때문에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63%는 집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담 대상 어린이의 3/4은 친구들과의 놀이, 스포

츠, 그리고 다른 비슷한 활동들에서 거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면담 대상 어린이의 62%는 그들이 생존하여 어른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 3.3 소아 행동 척도 (Child Behavior Inventory)

이 도구는 그 사건의 충격적 성격에 의한 정서적 및 행동적 혼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령, 이 도구는 외로움, 공포, 화, 그리고 불안 등 어린이의 감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 도구는 전쟁에 영향을 받은 어린이를 연구하는 "Bergen Columbia Group"에 의해서 수집되었다.

Question Asked of Event	Percent Answering "Yes"
Do you cry easily?	68.0%
Do you feel sad or unhappy?	76.3%
Do you worry about many things?	72.2%
Do you feel unloved?	20.2%
Are you afraid of losing your family (through death or separation)?	78.4%
Do you feel tired?	67.0%
Do you prefer being alone rather than around friends or family?	18.6%
Do you feel lonely?	47.3%
Do you feel worthless?	23.7%
Do you feel helpless?	36.6%
Do you get angry easily?	61.5%
Do you get irritable easily?	63.8%
Are you verbally aggressive? For example, yelling, swearing, verbally threatening others.	58.3%
Are you physically aggressive towards others? For example, hitting, pushing, physically intimidating others.	34.4%
Do you destroy your or other people's things?	10.5%
Do you disobey your parents or teachers?	14.7%
Are you hot-tempered or explosive?	34.8%
Do you violate the important rules of the community?	7.5%
Do you blame others for things that are your own fault?	16.3%
Are you jumpy?	67.7%
Are you scared of things or situations that don't usually scare other children?	37.4%
Are you frightened that something bad will happen to you?	65.0%
Are you scared of new situations? For example, going to new places, meeting new people.	55.3%
Is it hard for you to concentrate on your school work?	52.1%
Is it necessary for you to be with an older person to feel safe and secure?	72.6%
Do you wet your bed at night?	2.1%

### 3.3.1 고찰

소아행동 척도(Child Behavior Inventory)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슬픔과 근심을 경험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다. 75%의 어린이가 슬프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족의 생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안전을 위해서 더 나이 많은 동반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5명의 어린이중 4명 꼴로 죽거나 헤어지게 되어 가족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면담 동안에, 생존 죄책감이라는 주제가 등장하였다. 이 질문은 체계적으로 연구된 부분은 아니었지만, 질문을 받은 어린이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살았고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감과 죄책감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 3.4 미래에 대한 질문(Preparedness for the Future)

이 개념은 미래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미래관을 가지려는 어린이의 노력을 포함한다. 모잠비크, 우간다, 그리고 West Bank에서 시행된 초기의 연구들에서, 저자들은 어떻게 어린이들이 자신과 국가의 미래에 대하여 전망을 하고 있는가를 상세히 나타내려고 시도하였다. 이 연구들로부터 국가간의 정치적 문제들은 소수의 어린이들에게서 미래관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다음의 3.5 이해의 정치적 틀'을 참고하십시오.)

다음 질문들은 어린이와 그 부모/보호자 모두에게 질문한 내용이다.

	Percent answering 'YES'	
	Asked of the child	Asked of the parent
Since the event happened, does the child seem worried that she/he might not live to become an adult?	62.2%	38.5%
Does the child worry about many things?	72.2%	52.3%
Is the child afraid of losing her/his family through death or separation?	78.4%	61.4%
Has the child indicated that she/he is frightened that something bad will happen to him/her?	65.0%	37.2%

### 3.4.2 고찰

이 수치들은 이라크 어린이들의 미래 전망은 최근의 걸프 위기에 의해서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면담 대상 어린이의 62%는 그들이 생존해서 어른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한다. 더욱 많은 비율의 어린이(78%)들이 자신의 가족을 잃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종전 이후 6개월 이상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수치들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있었던 전투라는 충격적 사건들은 어린이의 미래 전망에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통합되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 보고서와 부모 보고서 사이의 차이는 많은 어린이들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싸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3.5 이해의 정치적 틀(Political Frame of Understanding)

이 부분은 미래에 관한 어린이 자신의 글과 어린이와의 대화 내용에 근거를 두었다.

#### 3.5.1 발생한 사건에 대한 무지

어떤 어린이들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아직 나는 누가 먼저 쿠웨이트를 공격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어”.

면담 대상 어린이들 중 많은 수의 경우, 그들이 그 전투와 사건들이 발생했던 이유를 애당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사건들이 다시 쉽게 발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3.5.2 발생한 사건에 대한 ‘비밀스런’ 이야기

면담했던 어린이들 중 일부는 다음 이야기를 자세히 말했다: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점령했으며 그 점령 행위는 나빴다. 그래서 부시는 쿠웨이트를 도왔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쿠웨이트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가 오일을 통제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이었다. 부시는 쿠웨이트를 다시 차지했고 이라크를 공격했으며 그것 또한 나빴지만 그 사실은 비밀이다. 이 부분의 연구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들과의 상세한 토론 결과 대체로 위에서 기술한 내용에 도달하였다.

#### 3.5.3 발생한 사건에 ‘공식적인’ 이야기

어린이들이 전투의 배경이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은 부시라는 이름에 의해 인격화되는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6-7세의 어린이들조차 부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나이 어린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부시가 이라크에 폭탄을 투하하는 비행기에서 어떻게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것이다. 나이 든 어린이들은 미래에 이라크를 위한 승리를 선언함으로써, 어떤 어린이들은 또한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부시를 반대한다는 이야기(anti-Bush version)를 끝 맺는다.

#### 3.5.4 제재(sanction)에 관한 견해

부모와 보호자들은 어린이들과 더불어 종종 제재(sanction)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대중들에게 공격성, 복수심, 그리고 부정적인 반미 성향을 유발시키는 것은 전쟁 그 자체라기 보다는 ‘제재’에 의한 것이라는 느낌을 분명하게 받았다. 이 점은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Question Asked of Event	Percent Answering 'Yes'
Did the child experience:	
- shelling	79.7%
- air raids	79.5%
- shooting at close distance	61.9%
- own home destroyed	25.6%
- being shot at	13.0%
- being wounded	13.5%
Due to the war, was the child separated from:	
- the mother or primary female caregiver	5.0%
- the father or primary male caregiver	39.5%
- both mother/father or caregivers	2.5%
Has the child lost close family members during the war?	
- mother	8.7%
- father	2.5%
- others	33.6%
Has the child's behavior changed after the war?	82.4%
- more anxious and fearful?	81.5%
- more depressed and sad?	76.6%
- more angry and irritable?	79.8%

### 3.6 전쟁 관련 설문 (War Event Survey) : 충격, 이별, 그리고 상실

Section 2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린이의 부모/보호자에게 외상, 이별, 상실뿐만 아니라 전투에 노출된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Mortality and Nutrition Survey Team은 부가적으로 127명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War Event Survey를 행하였다.

War Event Survey에서 면접에 응했던 어린이의 대부분은 바그다드 출신이었지만, 이라크의 다른 지역들로부터도 또한 피면접자들(interviewees)을 선택하였다. 가족과의 일시적 및 영구적인 이별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실제로 전투(폭격, 포격, 사격)에 육체적 위협에 노출된 것에 초점을 두고 Survey를 행하였다.

#### 3.6.1 고찰

많은 어린이들이 포격, 공습 또는 근거리 교전을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은 이들 어린이들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행동변화 현상을 최소한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소수의 어린이들만이 일차적인 보호자(어머니)로부터 이별을 경험하였지만, 가족과 친지의 상실은 어린이에게 지속적으로 오랜기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전투가 끝난 이후의 어린이의 행동에 관하여 부모와 보호자에게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대부분은 그들의 어린이가 최근의 사건들에 대해서 심각한 정신적 반응을 경험했다

고 말했다. 이러한 행동의 혼란은 휴전 후에도 6개월 이상 남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의 연구는 모든 어린이가 걸프 위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고도로 노출된 어린이 인구집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3.7 바스라 가족 연구(Basrah Family Study)

바스라의 세 지역(Al Hakimiyeh, Hay al Shuhada, 그리고 Al Tamimieh)에 거주하는 스물다섯 가족이 그들의 외상, 이별 및 손실 등 전쟁 동안의 경험에 관하여 면접조사 대상이었다. 선정된 가족들은 전쟁과 시민 봉기에 의해서 심하게 영향을 받았던 바스라 시의 전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모두 세 가족이 거주지 파괴의 가시적인 근거를 보여주었다.

Number of families = 25, Number of children = 89	
Variable	Percent Affected
TRANSITION/STRESS	
Number of families having to leave the home	92.0%
Trauma	
Houses directly affected	100.0%
Families with members directly hurt	28.0%
Families who saw dead/wounded	52.0%
SEPARATION	
Families separated from the father	60.0%
Families separated from the mother	12.0%
Families separated from both mother and father	8.0%
LOSS	
Loss of parents	16.0%
Loss of close relatives	44.0%
Loss of close friends/neighbours	76.0%

## 4. 결론

위에서 보고된 여러 연구들의 결과들은 면접조사 대상이었던 대부분의 이라크 어린이들이 다음과 같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 i) 정서적(Emotional) 반응 - 우울증, 슬픔, 불안 및 공포.
- ii) 인지적(Cognitive) 반응 - 수면 및 집중력 문제.
- iii) 예기적(Prospective) 반응 - 미래에 관한 걱정.

위와 같은 반응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이의 비율은 전투가 치러진 지역에서 10년 이상 동안 저자들이 기록한 비율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 5. Comment

어린이 면접 조사로부터 받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그다드와 바스라 시 지역 모두에서 '삶'의 공핍을 관찰한 점이었다. 심한 우울증, 슬픈 외모, 지친 모습, 그리고 망연자실 등이었다. 이라크 어린이들은 피로, 에너지 결핍, 집중력 문제, 무엇이 발생했고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혼동 등 그들의 인지적 기능에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예기적 사고에 있어서 심하게 혼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로부터 도출되는 가장 심각한 결론은 이 어린이들에게 발생한 것(심한 정신적 충격)은 그들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이 문제들이 미래의 삶 내내 지속할지 모른다.

'겨울전쟁'(1939) 전후 영향을 조사한 핀랜드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사건 후 심지어 50년 동안 심각한 영향을 나타냄을 보여준다. 이라크에서 연구된 어린이들은 모두 그들의 충격적 경험과 현재의 어려운 여건에 의해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애도, 슬픔, 그리고 절망적 공포에 의해서 정서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의하면, 어른들은 그들의 어린이가 사실상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그 경험들로부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음으로 보여준다.

면접에 응한 어린이들은 그들이 본 것들 즉, 비행기 폭격, 주택 붕괴, 화재, 군인들의 싸움, 절단되고 으스러진 신체들, 그리고 타버린 트럭들 등을 짜맞추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어린이들은 애써서 그들이 들었던 소리들 즉, 비명소리, 절망적인 목소리, 비행기와 폭발음 등을 잊으려고 애쓴다.

어린이들에게는 사격, 비행기 연료, 화재, 그리고 타버린 몸뚱이 등의 냄새 들이 늘 붙어 따라다닌다. 많은 어린이들은 여전히 그들이 직접 만졌던 것들 예를 들면, 비행기 잔해, 피, 사체, 그리고 부상입은 친지들 등에 대한 기억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매일 밤 이 어린이들은 끔찍한 소리, 흔들리는 지축에 대한 기억, 그리고 가족 모두가 폐허가 된 집에 묻히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잠을 청한다.

